KBS 시 청 자 의 견 일 일 보 고 서 [11.10]

Ⅰ. 상담실적

○ 상담기간: 2026. 11. 9.(월) 07:00 ~ 22:00

○ 상담건수: 523건

Ⅱ. 주요의견 내용

○ 진행자 호평(1명)

-프로그램명 :「6시 내고향」

-방송일시 : 2026. 11. 6.(금) 1TV (18:00-19:00)

전날에 이어 이날도 김진희 아나운서를 대신해 이윤정 아나운서가 진행을 맡았다. 또박또박 정확한 발음과 자연스러운 진행은 물론, 패널들과의 원활한 소통과 겸손한 태도도 보기 좋았다. 칭찬하고 싶다.

○ 편성 제언(2명)

-프로그램명 :「개그 콘서트」

-방송일시 : 2TV (일) (22:35-24:05)

재미있지만 방송 시간이 늦어 아쉽다. 다음 날 출근에 지장이 생겨 끝까지 시청하기 어려운 만큼, 예전처럼 오후 9시 20분으로 시간을 앞당겨 편성해 주기 바란다.

Ⅲ. 청원현황

○ 신규청원

- 4건.

○ 이슈청원 및 특이사항

- 청원 성사 : '포식자들' 방영 관련.

※ 참고: KBS홈페이지->시청자권익센터->시청자청원(http://petitions.kbs.co.kr)

Ⅳ. 일일 상담내용

1. 상담실적 : 총 523건

○ 형태별 분류

전화	인터넷	우편·FAX	방문	ARS[1)]	계
250	125	-	-	148	523

○ 채널별 분류

1TV	2TV	라디오	DMB	인터넷	非채널	계
184	158	8	-	1	172	523

○ 내용별 분류

의견제시	단순문의	기타	계
56	467	-	523

○ 분야별 분류

방송	기술	경영	기타	계
323	-	34	166	523

시청자 의견	문 의
【편 성】 ○「개그 콘서트」 - 편성 제언 **【보 도】** ○「KBS 뉴스 9」 - 보도 제언 **【시사·교양】** ○「6시 내고향」 - 진행자 호평 ○「추적 60분」 - 방송 제언 **【연예·오락】** ○「살림하는 남자들」 - 출연자 제언 ○「1박 2일」 - 방송 제언 **【라디오】** ○「명사들의 책읽기」 - 방송 제언 **【기 타】** ○「홈페이지 제언」 - 홈페이지 제언	**【방 송】** ○「6시 내고향」 - '누룽지' 연락처 문의 23건 ○「2TV 생생정보」 - '해신탕' 연락처 문의 21건 ○「말자쇼」 - '방청' 문의 16건 ○「가요무대」 - '방청' 문의 11건 ○「아침마당」 - '당첨 안내' 문의 10건 **【경 영】** ○「홈페이지」 문의 22건 ○「프로그램 구입」 문의 8건 ○「수신료」 문의 1건 ○「주차」 문의 1건 ○「견학」 문의 1건 ○「인터넷 방송」 문의 1건 **【기 타】** ○ 한전 문의사항 포함 166건

1) **ARS 항목 상세내용:** 제보, 홈페이지문의, 프로그램 구매문의, 출연자 및 출연업체 전화번호 안내

2. 프로그램별 의견

의견	세부내용
[편 성]	
편성 제언	ㅇ「개그 콘서트」(2명) - 2TV (일) (22:35-24:05) - 재미있지만 방송 시간이 늦어 아쉽다. 다음 날 출근에 지장이 생겨 끝까지 시청하기 어려운 만큼, 예전처럼 오후 9시 20분으로 시간을 앞당겨 편성해 주기 바란다. ※의견제시자 : 익명 외
[보 도]	
보도 제언	ㅇ「KBS 뉴스 9」'[오늘의 영상] 안방서 두 시즌 연속 11승! 더 크게 포효한 안세영'(1명) - 2026. 11. 8.(일) 1TV (21:00-21:30) - 다른 종목은 경기 내용과 관련 소식을 자세히 전했지만, 안세영 선수의 우승 소식은 스포츠에 큰 관심이 없는 시청자가 보기에도 상대적으로 소홀하고 부실하다고 느껴졌다. 형식적으로 짧게 다룰 바에는 차라리 보도하지 않는 편이 낫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다. ※의견제시자 : 익명
[시사・교양]	
진행자 호평	ㅇ「6시 내고향」(1명) - 2026. 11. 6.(금) 1TV (18:00-19:00) - 전날에 이어 이날도 김진희 아나운서를 대신해 이윤정 아나운서가 진행을 맡았다. 또박또박 정확한 발음과 자연스러운 진행은 물론, 패널들과의 원활한 소통과 겸손한 태도도 보기 좋았다. 칭찬하고 싶다. ※의견제시자 : k**

의견	세부내용
방송 제언	ㅇ「추적 60분」‘아파트가 있어서 가능한 사랑’(1명) - 2026. 11. 6.(금) 1TV (22:00-22:50) - 자가가 없는 중년으로서 시청 소감을 담백하게 전한다. 열심히 살아왔음에도 여전히 내 집 마련이 어려운 현실에서 이날 방송은 깊은 좌절감과 절망감을 안겨주었다. 내 집 마련이 쉽지 않은 사람들의 마음도 헤아려 주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았다. 다양한 시청자의 입장을 고려해 제작해 주기 바란다. **※의견제시자 : 노****
[연예・오락]	
출연자 제언	ㅇ「살림하는 남자들」(2명) - 2026. 11. 7.(토) 2TV (22:35-23:55) - 박서진 씨와 가족들이 다투는 모습이 자주 반복되어 보기 좋지 않다. 이 프로그램을 좋아하지만, 여동생과 서로 막 대하거나 부모님께 함부로 말하는 장면이 나오면 시청하기 거북해 채널을 돌리게 된다. 이러한 모습이 시정되길 바란다. **※의견제시자 : 익명 외**
방송 제언	ㅇ「1박 2일」(1명) - 2026. 11. 8.(일) 2TV (18:10-20:00) - 과거에는 게임이 냉정하게 진행되어 승부의 긴장감과 희열을 느끼는 재미가 있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출연자들에게 지나치게 관대한 방식으로 진행되어 긴장감이 떨어지고 게임의 취지도 무색해졌다. 예전처럼 프로그램 고유의 재미를 되살려 주기 바란다. **※의견제시자 : 익명**

의견	세부내용
[라디오]	
방송 제언	ㅇ「명사들의 책읽기」(1명) - 2026. 11. 8.(일) 3R (15:00-16:00) - 시각장애인 청취자로서 11월에는 한글 점자의 날을 맞아 점자의 가치와 의미를 다루어주기를 기대했지만 이미 지난 한글날과 세종대왕에 관한 내용이 방송되어 아쉬웠다. 주제가 잘못되었다는 뜻은 아니지만, 11월에 맞는 점자의 의미를 조명했다면 더욱 시의적절하고 좋았을 텐데 아쉽다. ※의견제시자 : 익명 (010-5429-****)
[기 타]	
홈페이지 제언	ㅇ「홈페이지 제언」(1명) - KBS 장애인 서비스가 보안 점검으로 일시 중단되었는데, 언제부터 다시 이용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 조속히 서비스가 재개되기를 바란다. ※의견제시자 : 자**